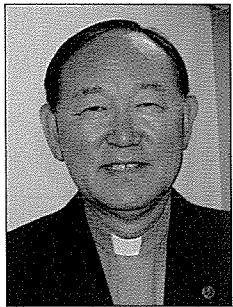


# 해외의료봉사로 그리스도 사랑 실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처의 오지를 15년간 방문,  
무려 1만6천여 명의 환자를 치유봉사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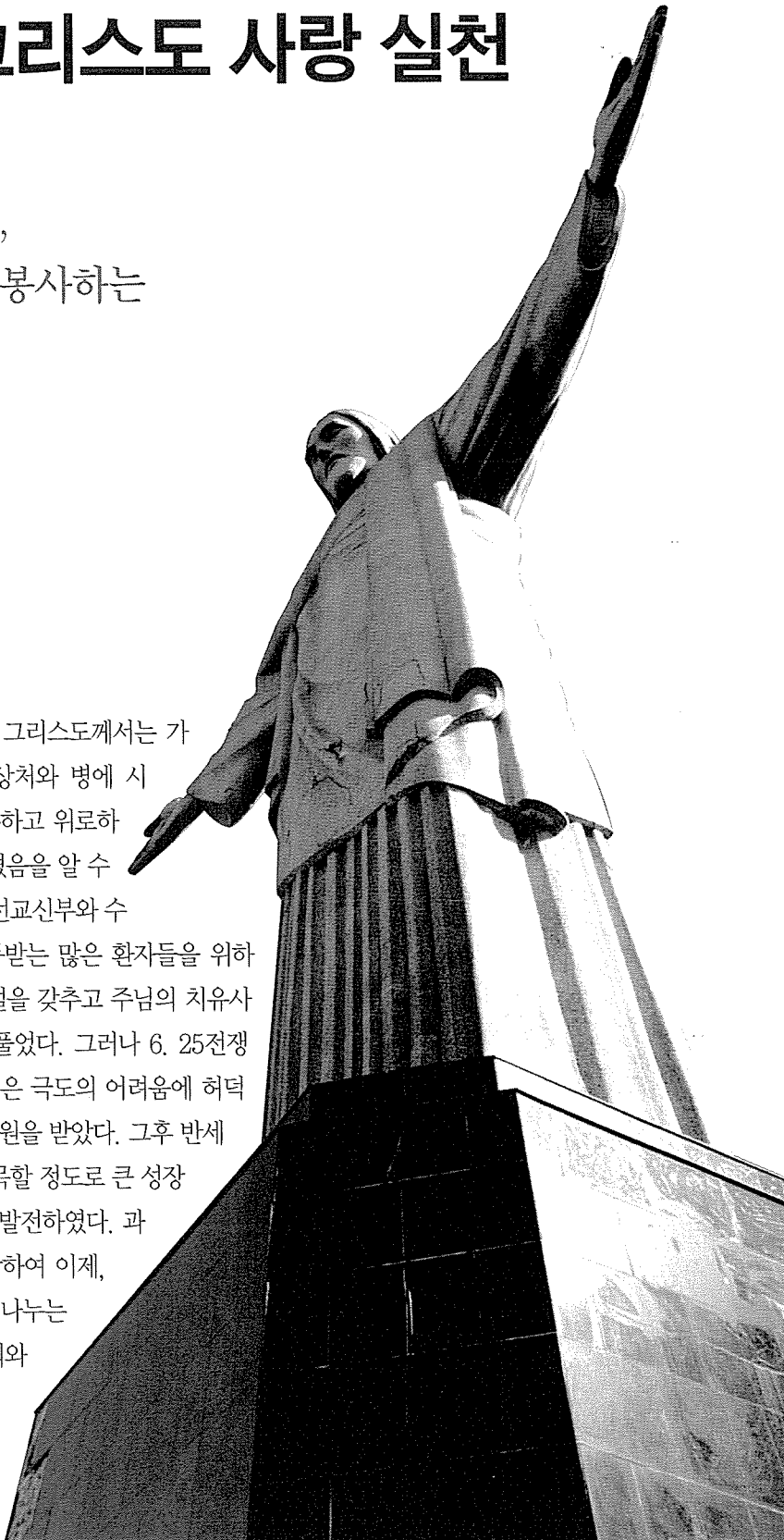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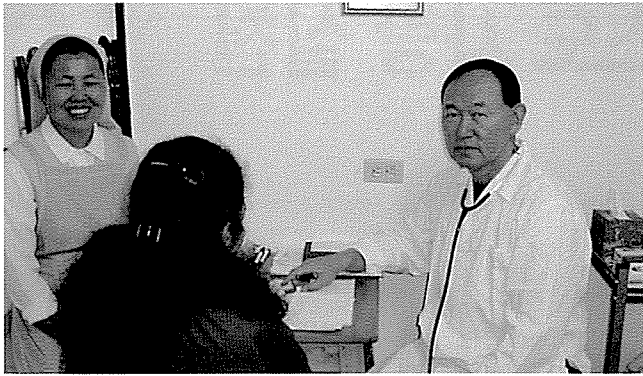
김 중 호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사

성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상처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봉사활동에 전 생애를 바쳤음을 알 수 있다. 초기 교회에서 일했던 선교신부와 수녀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을 위하여 항상 성당 주변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주님의 치유사업을 재현하는 큰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나 6. 25전쟁기 전후에는 한국의 경제사정은 극도의 어려움에 허덕

이고 있었던 바, 참전한 여러 국가로부터 많은 의료지원을 받았다. 그후 반세기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국가 경제규모는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고 교회와 의료기관도 양과 질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과거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받았던 값진 은혜를 생각하여 이제, 우리도 가난한 나라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왕에 가톨릭병원협회와 가톨릭의사협회의 회원들이 십수 년 동안 해외의료 선교 활동에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참인술을 펼치는 것,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





(상) 2004년 5월 의료팀의 콜롬비아 갈다시스 재활센터에 외과진료 중 류위숙(스콜라스티카, 예수회 선교수녀회) 수녀와 함께  
 (중) 2004년 5월 의료팀의 콜롬비아 갈다시스 재활센터에 방문 진료  
 (하) 2002년 8월 의료팀의 몽골 토보도의 순회진료

주는 것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숭고한 사명이다. 우리의 해외의료선교는 지난 1987년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의료지원 요청을 받아 의약품을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9년에 처음 가톨릭 해외의료선교 지원단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사가 진행되었다. 그간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낙후지역에서 1만 6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고, 매년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금년은 해외의료지원 활동을 시작한 지 15년째가 되는 해다. 초기에는 의료진의 구성, 기금마련,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과 언어소통 등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으나 각계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까지 대과없이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보다 큰 차원의 발전을 이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면 다음과 같다.

### 남미 에콰도르 빨마지역 의료지원

4명으로 구성된 가톨릭 해외의료선교팀(김중호, 박성학, 조승열, 김순영 등-존칭 생략)이 처음 방문한 곳은 한국의 선교신부와 수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에 위치한 빨마 본당으로 이곳은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본당 관할지역의 인구는 약 12,000명, 11개의 공소가 있었지만 주민들은 생활기반으로 농업이나 어업을 택하고 있고 소득은 기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기후마저 연중 강우량이 극소량에 불과한 아열대 건조지역으로 식용수까지도 오염된 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영양실조, 결핵, 설사, 이질 등 각종 질병으로 주민의 대다수가 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난과 무지의 대물림 그리고 도처에 불결한 환경은 방치되고, 의학적인 진료혜택은 생각지도 못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봉사팀은 1989~90년에 2년 연속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여 외래환자 2,710명을 진료했고, X-ray촬영기, 현미경 그리고 의약품 다수를 기증했다.

### 아프리카의 케냐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의료지원

① 케냐 : 의료선교지원단은 19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아프리카 케냐의 체송고치 지역에서 의료선교사업을 펼쳤다. 체송고치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약450km 떨어진 최악의 오지였다. 거주민은 2만여 명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였지만 극도의 빈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었다.

봉사기간 동안 외래환자 2,187명 진료했고, 질병 예방교

육을 실시했으며, X-ray촬영기를 기증했다.

②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전술한 케냐지역 이외에도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의 보다 지방에서 오랫동안 이동진료소를 운영해온 한국인 강요세파 수녀에게 4만 달러의 현금과 현미경 2대도 지원했다. 이곳 아프리카 의료선교는 인도주의적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위해 시작했으며 기아와 질병, 그리고 내전에 시달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죽음에 직면한 주민들에게 새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몽골공화국의 의료지원

남미 에콰도르와 아프리카 케냐의 난민구호 활동에 이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은 아시아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몽골공화국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했다. 몽골은 대평원의 광활한 국토에서 약 250만 명의 소수인구가 살고 있고 생활수준은 낙후되어 보건소를 제외한 현대식 의료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환자 대부분은 현대의학의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봉사단은 방문진료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의료혜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한국에 초청해 완치시킨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1997년에는 토브도의 첼르, 바쭌바르 지역에서 2주간 동안 2,154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곳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100여km 떨어진데다 도로도 없는 오지이다. 인근지역의 순회진료와 지역관공서 공무원을 비롯한 진료소 직원과 가족의 건강검진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의료인들에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품과 의료기자재 등을 공급했다. 진료인원은 두 지역을 합하여 2,350명에 달했다. 봉사기간 내내 환자들이 줄을 이어 10명의 의료진은 진료시간을 연장해 가며 강행군을 지속해야 했다. 1998년에는 봉사단에 간호사를 보강하였고, 주민의 기생충 감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연구조사팀이 합류했다. 또한 현지 의료인이 안과진료에 협조해 예년에 비해 훨씬 체계적인 진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1999년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탈 남쪽지역 마을 바양언

줄, 볼랑가, 부렌, 델게르하안, 엔텔산드 등지에서 2주간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토브지역 보건소 의료진과 협동으로 펼친 진료활동을 통해 총 2,741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위생교육과 건강상담도 실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남미 콜롬비아 의료지원

2003년부터 매년 봄 가톨릭 국제의료봉사 팀은 콜롬비아 안티오키아도 깔다스시의 빈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의 선교회” 수녀원의 요청으로 이 지역 도시빈민에 대한 진료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 첫해에 이곳 재활센터에 소규모의 진료소를 만들어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분야에서 454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2004년에는 총 539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했다.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무의촌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지만 이곳 환자들도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해서 생긴 소화기 질환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부염, 염증성 안 질환, 머리에 기생하는 이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았다. 의료봉사에 참가할 때마다 ‘우리가 전해주는 소량의 의약이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과 염려는 늘상 가슴에 남게 된다. 진료 마지막 날 한 여인이 “무쵸 그라시아스!”를 되내이며 초콜릿 세 개가 담긴 작은 종이 상자를 선물로 전해주었다. 따스한 인간애에 눈시울이 뜨거웠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끝으로 오지의 의료봉사는 봉사자의 남다른 사명감과 사랑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든 사업이다. 현지에서의 어려움은 예상보다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필요하다. 가능한 많은 가톨릭인이 봉사에 대한 경험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한 평생을 고통과 질병, 굶주림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과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일부 젊은 세대들을 잠시나마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필자 역시 봉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활동과정에서 진정한 하느님 사랑을 배우는 기회를 얻게되어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